

# OC-I-1. Vascularized Interpositional Periosteal-Connective Tissue (VIP-CT) Flap: Primary coverage of immediately placed implants

전예란\*, 지숙, 방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과학교실 치주과

## 연구 배경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성공적인 치료 방법으로 증명되었다. 수술 횟수와 수술-보철 수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켜 심미적 및 기능적 이점을 지닌다. 발치 부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시 골 결손 부위가 작다면 차폐막의 사용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골손부위가 큰 경우 골 이식재와 함께 또는 차폐막의 단독 사용이 필요하다. 임플란트를 식립 전 적절한 연조직과 경조직을 얻기 위해 국소적 ridge augmentation을 시행할 경우에는 staged approach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와(또는) 차폐막 위로 flap이 불안정하게 덮일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차 봉합은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술식에서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와(또는) 차폐막의 조기 노출은 골 재생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 봉합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막 디자인이 고안되었다.

Scalar AG 에 의해 고안된 Vascularized Interpositional Periosteal-Connective Tissue (VIP-CT) Flap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한번의 술식으로 많은 양의 연조직을 이식 가능, 2) 혈행 공급 유지, 3) 수여부에서의 뛰어난 색상 조화, 4) 술후 수축의 최소화, 5) 공여부의 일차 봉합 가능, 6) 치료 기간의 단축, 7) 환자 불편감 감소, 8) 골 이식재의 성숙을 증대, 9) 경조직과 연조직의 동시 증대술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 마련

이번 연구의 목적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시 일차 봉합을 얻기 위해 사용한 VIP-CT flap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 연구재료 및 방법

### • Case 1

50세의 여자 환자로 상악 우측 측절치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Bio-oss를 사용하여 협측부위 골이식을 시행하였으며 VIP-CT Flap을 사용하여 일차 봉합을 얻을 수 있었다.

### • Case 2

49세 남자 환자로 상악 우측 제1 소구치의 치근 파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Bio-oss를 사용한 골이식 후 VIP-CT Flap을 시행하였다.

• Case 3

28세 남자 환자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잔존 치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발치시 치근의 apex 부위에 fenestration이 관찰되어 Titanium-reinforced membrane을 사용하여 골유도재생술 및 VIP-CT Flap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의 수술 후 불편감은 최소한이었으며 이차 수술시 모든 임플란트는 성공적으로 골유착되었다. 연조직과 경조직의 양과 형태 또한 만족할 정도 였다. 감염이나 골이식재의 손실도 없었다. Complete soft tissue coverage가 이차 수술을 시행할 때까지 잘 유지되었다.

결론

VIP-CT Flap은 많은 양의 연조직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연조직과 경조직의 이식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사용 가능한 매우 유용한 술식이다.